

제18호 (주)한라산 김덕호 부장



평화롭고 정이 넘치는 사업장. 안전으로 지켜내자!

도 바람, 여자가 많다하여 삼다도라 불리우는 제주도에 뜻깊은 경사가 있었다. 지난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주)한라산 김덕호 부장이 안전관리자로서 철탄산업훈장을 받은 것인데, 이는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개인자격으로, 그것도 안전관리자가 훈장을 받기는 보건대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하겠다.


■ 살아있는 교육으로 「안전은 나부터」운동 전개

1960년 11월 순수한 토착자본으로 설립된 (주)한라산은 제주도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소주를 생산하는 회사로 하루 생산량이 25만병에 달한다. 「회사는 가정처럼, 사원은 가족처럼」이라는 슬로건처럼 노사가 하나로 똘똘 뭉친 가족같은 (주)한라산은 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 철학의 밑바탕 아래 발전하는 회사이다.

안전의 출발점은 근로자 자신이라고 굳게 믿는 김덕호 부장은 「안전은 나부터」 운동을 전개하여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1:1 교육으로 실질적이고 사례 중심의 살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 시작이 나임을 피부로 느끼고 실천토록 한다. 그 결과, 안전을 소홀히 여겼던 근로자들이 먼저 보호구를 착용하고 교육에 적극 동참하는 등 '안전 한라산'으로 성큼 나아가고 있다.

■ 업무 자체의 개선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험공정에 디케퍼, 파렛타이저 등 자동기계를 도입하여 공정 자체의 개선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근로시간 중 피로가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는 오후 3시부터 20분동안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작업이 가능토록 하였고 업무 자체를 1시간마다 교대 작업하게 하여 오래된 동일 반복작업으로 인한 눈, 허리 등의 피로를 덜어주게 하는 것은 근로자를 배려한 김덕호 부장의 숨은 노력이다.

철탄산업훈장이라는 큰 상을 제주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겸손한 자세와 근로자들의 마음 속 깊이 안전의식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에서 안전관리자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성호연 기자)

